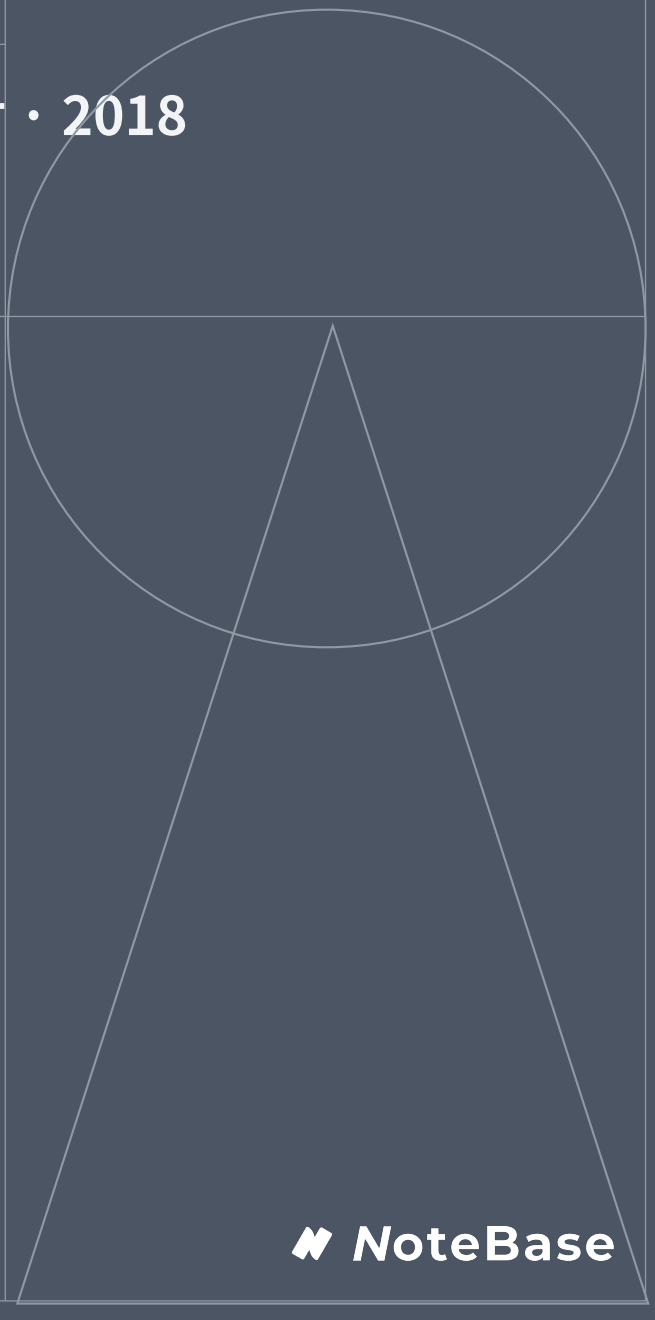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18

문 1. 멀리 있는 듯한 산이 매우 맑은 날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보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리지각 단서는?

① 상대적 크기

② 선형조망

③ 대기조망

④ 상대적 높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안적 거리 단서 중 대기조망과 다른 조망 단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기조망은 공기층의 탁도와 선명도 차이로 거리를 판단하는 단서이다 / 결정 차이축: 멀수록 흐리고 대비가 약해진다 / 키워드: 미세먼지, 흐릿함, 원거리

상대적 크기는 같은 종류 대상이면 망막상 크기가 작은 것이 더 멀다고 판단하는 단서이다 / 결정 차이축: 크기 비교 / 키워드: 동일 대상, 크기

선형조망은 평행선이 멀수록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단서이다 / 결정 차이축: 선의 수렴 / 키워드: 소실점, 원근감

상대적 높이는 시야에서 더 위에 있는 대상이 더 멀다고 판단하는 단서이다 / 결정 차이축: 화면 속 위치 / 키워드: 위쪽, 거리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상대적 크기는 같은 대상의 크기 차이로 거리를 판단하는 단서이므로 날씨가 맑은지 탁한지와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상대적 크기'이다. 올바르게는 공기층의 선명도 차이로 거리를 판단하는 대기조망이다.

② X
선형조망은 철길이나 도로처럼 평행선이 멀리서 수렴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문제처럼 먼 산이 맑은 날 더 가까워 보이는 현상은 선의 수렴 때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선형조망'이다. 올바르게는 대기 상태에 따라 원거리 대상의 흐릿함이 달라지는 대기조망이다.

③ O
대기조망은 먼 대상일수록 공기 중 먼지와 수증기 때문에 흐릿하고 푸르게 보인다는 단서이다. 매우 맑은 날에는 그 흐릿함이 줄어들어 먼 산이 실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④ X
상대적 높이는 시야에서 더 위쪽에 놓인 대상이 더 멀다고 보는 단서이다. 이 문항은 화면 속 위치가 아니라 대기의 맑고 탁함에 따른 거리 판단을 묻는다.
틀린 표현은 '상대적 높이'이다. 올바르게는 공기층의 탁도 변화가 거리 판단에 쓰이는 대기조망이다.

오답 포인트

원근감을 주는 단안 단서가 여러 개라서 선형조망이나 상대적 크기로 쉽게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발문에 '매우 맑은 날',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핵심 단서는 공기층의 탁도와 선명도 변화이므로 대기조망으로 좁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리 판단 문제에서 날씨, 안개, 먼지, 선명도, 색 대비가 단서로 제시되면 먼저 대기조망을 떠올린다. 반대로 선의 수렴이면 선형조망, 같은 대상의 크기 차이면 상대적 크기, 화면 속 위아래 위치 차이면 상대적 높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기조망은 먼 것이 흐릴수록 멀게, 맑을수록 가깝게 보이는 단서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예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현상 혹은 이론은?

한 미술학원에 학생 2명이 등록을 하였다. 학원장 선생님은 담당 선생님에게 “A 아동은 미술재능이 뛰어나지만 B 아동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아동의 미술에 대한 흥미나 재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 후, A 아동은 다양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B 아동은 미술대회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미술에 대한 흥미도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① 자기위주 편향(self-serving bias)
②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③ 호혜적 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
④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타인의 기대와 판단이 상대방에 대한 대우를 바꾸고, 그 대우가 실제 결과를 기대한 방향으로 만드는 현상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처음에는 A와 B의 미술 흥미와 재능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원장은 A는 재능이 뛰어나고 B는 그렇지 않다고 교사에게 미리 말했다.
그 뒤 1년 후에는 A는 성과가 커지고 B는 성과와 흥미가 모두 낮아졌다.

핵심 개념

자기충족적 예언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어 결국 그 기대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적용 요건은 선행 기대가 존재하고, 그 기대가 대우나 행동을 바꾸며, 그 변화가 실제 성과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처음 능력 차이보다 먼저 형성된 교사의 기대가 핵심 기준이다. A를 더 유능하다고 본 기대가 더 많은 관심·격려·기회를 낳고, 그 차별적 대우가 실제 성과 차이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기위주 편향은 자신의 성공은 내적 요인 덕분으로, 실패는 외적 요인 탓으로 돌리는 귀인 경향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당사자의 귀인 방식이 아니라 교사의 선행 기대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자기 해석의 편향'으로 보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타인의 기대가 결과를 형성한 현상'이다.
② X: 사회교환이론은 인간관계를 보상과 비용의 교환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 사례에는 관계의 이익 계산이나 상호 보상 구조가 아니라 기대에 따른 차별적 대우와 성과 변화가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교환 관계의 계산'으로 보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기대가 행동을 바꾸어 결과를 만든 과정'이다.
③ X: 호혜적 결정론은 개인 요인, 행동,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반두라의 일반 원리이다. 이 사례도 넓게 보면 환경과 행동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지만, 문항이 직접 묻는 현상은 특정 기대가 그 기대에 맞는 결과를 낳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다. 틀린 표현은 '상호작용 일반'으로 답을 고르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기대가 결과를 스스로 실현시키는 현상'이다.
④ O: 자기충족적 예언은 처음의 예측이나 기대가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결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처음에는 두 아동의 수준이 비슷했는데도 교사의 기대가 달라졌고, 그 기대가 결국 A의 향상과 B의 저하로 이어졌으므로 사례에 가장 잘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호혜적 결정론과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호혜적 결정론은 사람·행동·환경의 상호작용을 넓게 설명하는 틀이고, 이 문항의 직접 단서는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기대를 들은 뒤 결과가 그 기대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므로 자기충족적 예언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처음 능력은 비슷한데 교사·부모·상사의 기대가 먼저 제시되고, 이후 성과가 그 기대 방향으로 변하면 자기충족적 예언을 우선 판단한다. 반대로 보상과 비용 계산이 중심이면 사회교환이론, 성공·실패 원인 해석이 중심이면 자기위주 편향을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가 대우를 바꾸고, 대우가 결과를 바꾸면 자기충족적 예언이다.

NoteBase

문 3. 다음과 관점이 유사한 성격이론은?

이제마는 사상의학에서 인간의 성품은 타고난 체질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① 특질이론
② 학습이론
③ 사회인지이론
④ 정신역동이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제마의 사상체질론처럼 성격을 비교적 선천적이고 안정된 성향 차이로 보는 관점을 어떤 성격이론과 연결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이제마의 사상체질론은 인간의 성품이 타고난 체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특질이론은 개인마다 비교적 안정된 성격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그 차이로 성격을 설명한다.
학습이론은 강화, 조건형성, 모방 같은 후천적 학습 경험으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본다.
사회인지이론은 성격을 개인의 인지, 기대, 자기효능감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정신역동이론은 무의식적 갈등과 초기 경험이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기 중 가장 유사한 것은 특질이론이다. 이제마의 관점은 사람마다 비교적 안정된 성향 차이가 있고 그것이 행동과 성품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본다는 점에서 특질이론과 가장 가깝다.
② X: 틀린 표현은 "학습이론"이다. 학습이론은 성격을 타고난 체질보다 후천적 강화와 조건형성의 결과로 본다. 올바르게는 "선천적이고 안정된 성향 차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특질이론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회인지이론"이다. 사회인지이론은 체질 분류 자체보다 인지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올바르게는 "체질에 따른 비교적 안정된 개인차를 강조하는 관점은 특질이론에 가깝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정신역동이론"이다. 정신역동이론은 무의식, 갈등, 초기 경험을 중심으로 성격을 설명하므로 체질에 따른 유형 구분과는 초점이 다르다. 올바르게는 "무의식적 갈등이 아니라 안정된 성향 차이를 강조하는 이론은 특질이론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이제마의 이론이 엄밀히는 체질에 따른 유형론적 성격분류라는 점이다. 보기에는 유형론이 없으므로 선천성, 안정성, 개인차라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이론을 골라야 하며, 후천적 학습이나 상황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가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격을 타고난 체질, 기질, 안정된 개인차로 설명하면 특질이론 쪽으로 판단한다. 성격을 학습의 결과로 보면 학습이론, 인지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면 사회인지이론, 무의식적 갈등으로 보면 정신역동이론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선천적 체질·안정된 개인차는 특질이론, 후천적 강화는 학습이론, 인지·환경 상호작용은 사회인지이론, 무의식·갈등은 정신역동이론이다.

NoteBase

문 4. 다음에서 짐작할 수 있는 형주의 정체성 유형은?

형주는 말했다. “아빠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계셔. 왜냐하면, 부모님도 다른 친척들도 모두 의사니까. 그래서 나도 의사라는 직업은 잘 모르지만 의사가 되려고 해.”

① 정체성 혼돈(identity diffusion)
②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
③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
④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업 정체성에서 탐색 여부와 전념 여부를 구분하여 사례를 어느 정체성 지위에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형주는 부모와 친척이 모두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도 의사가 되려 한다.
핵심 사실 2: 형주는 의사라는 직업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스스로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념하고 있다.

핵심 개념

정체성 유실은 충분한 탐색 없이 부모나 권위자의 기대를 받아들여 이미 진로와 가치에 전념한 상태이다.
적용 요건은 탐색의 부족과 전념의 존재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형주가 직업 내용을 스스로 탐색했는지와 이미 특정 직업에 전념했는지를 함께 본다. 형주는 의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지만 가족 기대 때문에 의사가 되려 하므로 탐색은 부족하고 전념은 있는 상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체성 혼돈은 탐색도 전념도 없는 상태이다. 형주는 직업 내용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았다는 점은 맞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방향 자체는 이미 잡고 있다. 틀린 표현은 전념이 없다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전념은 있으나 자율적 탐색이 없다.
② O: 정체성 유실은 가족이나 권위자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탐색 없이 진로를 결정한 상태이다. 형주는 부모와 친척이 모두 의사라는 이유로 자신도 의사가 되려 하므로 사례와 정확히 맞는다.
③ X: 정체성 유예는 여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형주는 의사 직업을 잘 모른다고 했을 뿐 대안을 탐색하고 있지 않다. 틀린 표현은 탐색 중이라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탐색 없이 가족 기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④ X: 정체성 성취는 충분한 탐색을 거친 뒤 스스로 전념한 상태이다. 형주에게는 자율적 탐색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성찰과 탐색을 거쳐 선택했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탐색 없는 전념 상태이다.

오답 포인트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므로 ④ 정체성 성취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취와 유실을 가르는 기준은 전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자율적 탐색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반대로 직업을 잘 모른다는 문장만 보고 ① 혼돈이나 ③ 유예로 가면 전념의 존재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체성 지위 문제는 먼저 탐색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전념이 있는지를 두 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탐색 없음과 전념 있음이 함께 보이면 정체성 유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체성 유실은 남이 정해 준 답에 스스로 탐색 없이 전념한 상태이다.

NoteBase

문 5. 얼굴에 대하여 사진 이미지와 거울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지 조사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는 거울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반면 주변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는 사진 이미지를 더 선호한다. 이를 설명하는 효과는?

① 자기참조 효과

② 틀 효과

③ 방관자 효과

④ 단순노출 효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신과 타인의 얼굴에서 익숙한 방향의 이미지를 더 호감 있게 느끼는 현상을 단순노출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순노출 효과: 반복해서 접한 자극을 더 친숙하고 호감 있게 평가하는 현상이다.
자기참조 효과: 정보를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처리할 때 기억이 더 잘되는 현상이다.
틀 효과: 내용은 같아도 제시 방식이 달라지면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방관자 효과: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도움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기참조 효과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기억 향상을 설명하는 개념이지, 거울 이미지 선호 같은 얼굴 호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얼굴 이미지 선호'를 자기참조 효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자기참조 효과는 자기 관련 정보의 기억 우세를 설명한다.
② X: 틀 효과는 같은 사실도 표현 방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이 문항은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반복 노출된 얼굴 방향의 친숙성 차이를 묻는다. 틀린 표현은 '사진과 거울의 제시 형식 차이'를 핵심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익숙하게 본 방향의 얼굴을 더 선호하는 단순노출 효과이다.
③ X: 방관자 효과는 응급 상황 등에서 타인의 존재 때문에 책임이 분산되어 도움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얼굴 이미지 선호와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주변 사람의 존재'를 원인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반복 노출로 인한 친숙성이 선호를 높인다.
④ O: 자신의 얼굴은 거울을 통해 반복해서 보고, 주변 사람의 얼굴은 보통 실제 방향, 즉 사진과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본다. 그래서 각자 익숙한 방향의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반복 노출된 자극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단순노출 효과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장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므로 자기참조 효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참조 효과의 핵심은 자기 관련 처리에 따른 기억 향상이고, 이 문항의 핵심은 반복해서 본 방향의 얼굴에 대한 친숙성과 호감 증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기 속 현상이 기억의 향상인지, 판단의 틀 변화인지, 타인의 존재에 따른 행동 변화인지, 아니면 반복 노출에 따른 친숙성 증가인지를 먼저 가른다. 특정 자극을 자주 본 결과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단순노출 효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참조는 기억, 틀 효과는 제시 방식, 방관자 효과는 도움 행동, 단순노출 효과는 익숙함이 만든 호감이다.

NoteBase

문 6. S는 시험장에서 R에게 자리양보를 부탁하고 있다. S는 이 과목을 수강할 때 항상 앉던 자리이고 시험공부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험을 봐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며 자리양보를 원하고 있다. S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론 또는 현상은?

① 맥락의존기억(context dependent memory)

② 출처기억상실(source amnesia)

③ 계열위치효과(serial position effect)

④ 시험효과(testing effect)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습할 때의 환경 맥락이 인출 성과를 높이는 맥락의존기억과 다른 기억 현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맥락의존기억은 학습한 장소나 환경이 시험 상황에서 다시 주어질 때 인출이 잘되는 현상이다. 출처기억상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도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잊는 현상이다. 계열위치효과는 목록의 처음이나 끝 항목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이다. 시험효과는 반복해서 인출 연습을 할수록 장기 기억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S는 수강과 시험공부를 하던 동일한 자리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이라고 본다. 학습 맥락과 인출 맥락이 일치할 때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맥락의존기억에 해당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출처기억상실'이다. 출처기억상실은 정보의 출처를 혼동하거나 잊는 현상인데, 이 사례는 정보를 어디서 배웠는지 잊은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 맥락이 기억 인출을 돕는 상황이다. 올바르게는 '맥락의존기억'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계열위치효과'이다. 계열위치효과는 목록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인데, 이 사례에는 항목의 순서 정보가 전혀 없다. 올바르게는 '학습 환경과 시험 환경의 일치가 인출을 돕는 맥락의존기억'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시험효과'이다. 시험효과는 반복 시험이나 인출 연습 자체가 학습을 강화하는 현상인데, 이 사례의 핵심은 같은 자리에서 본다는 환경 단서이다. 올바르게는 '반복 인출이 아니라 맥락 단서에 의해 설명되는 맥락의존기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같은 자리에서 시험을 본다는 말을 보고 단순히 '시험을 보니 기억이 좋아진다'고 연결하면 4번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시험 여부가 아니라 '수강할 때 항상 앉던 자리'와 '시험공부도 여기서 했다'는 환경 일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 장소, 분위기, 냄새, 상태 같은 학습 당시 단서가 다시 주어져 기억이 잘 난다고 하면 맥락의존기억을 먼저 본다. 반대로 정보의 출처를 잊었는지, 목록의 위치가 중요한지, 반복 인출 연습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면 다른 선택지를 빠르게 지울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같은 맥락이면 인출이 잘되고, 같은 시험이면 학습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7. 다음 H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성격장애 유형은?

H는 얼마 전 이성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성 친구는 처음에는 H에게 호감을 느꼈으나 지나치게 집착하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H가 부담스러웠다. 몇 번 부담스럽다는 표현에 H는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였으며 밤새 술을 마셔대곤 했다. H는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난 소비를 하였으며,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기분변화를 보였다. 결국 이성 친구는 부담을 느껴 이별을 통보했으며, H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였다. H는 이전의 몇몇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한다.

① 회피성(avoidant)
② 경계선(borderline)
③ 반사회적(antisocial)
④ 편집성(paranoi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버림받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불안정한 대인관계, 충동성, 급격한 기분변화와 자살 시도라는 사례 단서를 경계선 성격장애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H는 상대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강한 분노를 보였고, 관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심한 기분변화를 보였다.
핵심 사실 2: 잘 보이기 위한 엄청난 소비, 밤새 술을 마시는 행동, 이별 직후 자살 시도처럼 충동적이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버림받음에 대한 과민성, 불안정하고 집착적인 친밀관계, 반복되는 자해·자살 위협이 함께 보인다.

핵심 개념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 자아상, 정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충동성과 자해·자살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성격장애이다.
적용 요건: 버림받음 회피,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관계, 감정기복, 충동성, 부적절한 분노, 자해·자살 행동 중 여러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NoteBase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관계가 끊길 때의 반응과 정서 조절 양상을 함께 본다. 핵심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좌절 시 충동적 행동과 자살 시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 사례를 회피성 성격장애로 보는 판단은 틀리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비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 자체를 피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H처럼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버림받음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경계선 성격장애에 가깝다.
② O: H는 버림받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상대를 붙잡기 위한 과도한 행동, 심한 감정기복, 충동적 소비와 음주, 이별 후 자살 시도를 보인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③ X: 이 사례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보는 판단은 틀리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거짓말, 사기, 무책임, 후회 없음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H의 핵심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상실에 대한 공포와 정서적 불안정성이다.
④ X: 이 사례를 편집성 성격장애로 보는 판단은 틀리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속인다고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불신과 의혹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H의 핵심은 피해망상적 의심이 아니라 친밀관계에서의 불안정성과 버림받음에 대한 과민반응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H의 분노나 음주만 따로 보고 ③ 반사회적 또는 ④ 편집성으로 옮겨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례의 중심 단서는 공격성 자체가 아니라 이별 상황에서 폭발하는 버림받음 공포, 관계의 불안정성, 자살 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성격장애 문제는 먼저 대인관계 양상, 정서 조절, 충동성, 핵심 두려움을 분리해 본다.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정한 관계, 자해·자살 위협이 함께 나오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우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계선 성격장애는 버림받음 공포, 관계의 불안정, 충동성, 자해·자살 위험이 한 묶음으로 기억된다.

NoteBase

문 8.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사고(thinking)의 경향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다. 구입하기 전에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던 냉장고 모델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기로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그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댓글들을 주로 찾아보았다.
(나) 생각해 보니 내 주위에는 그룹 'C-Black'의 팬들이 '유리 구두'의 팬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투표로 진행되는 연말 가요 대상에서 그룹 'C-Black'이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

① (가)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나)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② (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나)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③ (가) 후견 편향(hindsight bias), (나)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④ (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나) 후견 편향(hindsight bia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에 나타난 확증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 후견 편향의 핵심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증 편향: 자신이 이미 믿거나 선호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찾고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결정 차이축은 정보 탐색 방향이고, 키워드는 기존 신념 확인이다.
가용성 휴리스틱: 쉽게 떠오르는 사례나 주변에서 자주 접한 정보를 근거로 빈도나 가능성을 크게 판단하는 경향이다. 결정 차이축은 판단 근거이고, 키워드는 떠오름의 쉬움이다.
후견 편향: 결과를 알고 난 뒤 원래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느끼는 경향이다. 결정 차이축은 결과 제시 여부이고, 키워드는 사후적 당연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본 점이 틀리다. (가)는 특정 모델에 대한 긍정 댓글만 주로 찾았으므로 기존 선호를 확인하는 확증 편향이다.
(나)를 확증 편향으로 본 점도 틀리다. (나)는 주변에서 쉽게 떠오르는 팬 집단의 수를 근거로 수상 가능성을 추정하므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틀린 연결은 '(가) 가용성 휴리스틱, (나) 확증 편향'이고, 올바르게는 '(가) 확증 편향, (나)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② O
(가)는 자신이 염두에 둔 모델을 먼저 정해 두고 그 모델에 유리한 댓글을 주로 찾았으므로 확증 편향이다.
(나)는 내 주변에서 더 많이 보인 팬들을 전체 가능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③ X
(가)를 후견 편향으로 본 점이 틀리다. 후견 편향은 결과를 안 뒤 '원래 그럴 줄 알았다'고 보는 경향인데, (가)에는 결과를 알고 난 뒤의 사후 판단이 없다.
(나)는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맞게 보았지만, (가)의 연결이 틀려 전체 선택지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가) 후견 편향'이고, 올바르게는 '(가) 확증 편향'이다.
④ X
(가)는 확증 편향으로 맞지만, (나)를 후견 편향으로 본 점이 틀리다.
(나)에는 실제 수상 결과를 알고 나서 한 사후 해석이 없고, 주변에서 쉽게 접한 사례를 근거로 가능성을 추정하는 판단만 있다.
틀린 표현은 '(나) 후견 편향'이고, 올바르게는 '(나)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오답 포인트

확증 편향과 가용성 휴리스틱은 둘 다 판단 오류이지만, 확증 편향은 어떤 정보를 골라 보느냐의 문제이고 가용성 휴리스틱은 무엇이 쉽게 떠오르느냐로 확률을 판단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 다르다. 후견 편향은 반드시 결과를 안 뒤의 사후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례에 결과를 알고 난 뒤의 해석이 있는지 보면 후견 편향을 걸러낼 수 있다. 결과가 없으면, 기존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는지 보면 확증 편향이고, 쉽게 떠오르는 사례로 빈도나 가능성을 추정하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암기 포인트

확증 편향은 믿는 쪽만 찾기, 가용성 휴리스틱은 잘 떠오르는 쪽을 많다고 보기, 후견 편향은 결과 뒤에 원래 그럴 줄 알았다고 보기이다.

NoteBase

문 9. 측정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명척도에서는 질적 차이가 아닌 양적 크기를 기준으로 숫자를 배정한다.

② 서열척도는 분류와 순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③ 섭씨온도는 등간척도의 한 예이다.

④ 비율척도에서는 척도점수의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명척도는 대상을 범주로만 구분하는 척도이므로 숫자는 이름표 역할만 한다. 키워드는 분류이다.
서열척도는 분류에 더해 앞뒤 순서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키워드는 순위이다.
등간척도는 값 사이의 간격이 같지만 절대영점이 없는 척도이다. 키워드는 간격 비교이다.
비율척도는 절대영점이 있어 차이뿐 아니라 비율 비교까지 가능한 척도이다. 키워드는 절대영점과 비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명명척도는 성별, 혈액형처럼 질적으로 다른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숫자나 기호를 붙이는 척도이므로 양적 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양적 크기"이다. 올바르게는 "질적 차이 또는 범주 구분"을 기준으로 숫자를 배정한다.
② O: 서열척도는 대상을 분류할 수 있고, 그 범주들 사이의 높고 낮음이나 앞뒤 순서도 나타낼 수 있다. 등수나 만족도 순위가 대표적 예이다.
③ O: 섭씨온도는 눈금 간격의 의미는 일정하지만 0도가 절대적인 무를 뜻하지 않으므로 등간척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온도 차이는 비교할 수 있지만 두 배 관계를 바로 말할 수는 없다.
④ O: 비율척도는 절대영점이 있어 가감승제가 가능하다. 길이, 무게, 반응시간처럼 0이 실제 없음의 상태를 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숫자가 붙어 있으면 곧바로 양적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①은 숫자를 사용한다는 사실만 보고 명명척도를 양적 척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숫자가 단순한 이름표인지, 순서까지 있는지, 간격이 같은지, 절대영점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이름표만 되면 명명척도, 순서만 더해지면 서열척도, 간격이 같으면 등간척도, 절대영점까지 있으면 비율척도이다.

암기 포인트

명명은 분류, 서열은 순위, 등간은 같은 간격, 비율은 절대영점이다.

NoteBase

문 10.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한 학자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애쉬(Asch) - 선분 맞히기 실험에서, 바람잡이들의 일관된 틀린 답변을 들은 후 참가자가 답변한 경우, 전체의 $\frac{1}{3}$이 넘는 참가자가 틀린 답변에 동조하는 답변을 하였다.

② 밀그램(Milgram) - 복종에 대한 전기충격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권위적이며 사회적인 힘이 있는 실험자의 명령에 복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었고 과반이 넘는 참가자들은 가장 강한 충격인 450볼트까지도 실행하였다.

③ 모스코비치(Moscovici) - 다수 집단은 소수 집단의 표면적 변화와 내면적 변화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의 외견상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더라도 사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④ 자이언스(Zajonc) - 사회적 촉진 현상을 설명하였으며, 타인이 곁에 있으면 잘하는 일은 더 잘하고 못하는 일은 더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심리학의 대표 연구자와 그 연구 주제 및 핵심 결과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애쉬는 선분 맞히기 실험으로 집단의 만장일치가 개인의 동조를 끌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밀그램은 권위자의 명령 앞에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까지 복종할 수 있음을 전기충격 실험으로 보여 주었다.
모스코비치는 소수의 일관된 입장이 다수의 내면적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소수 영향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이언스는 타인의 존재가 우세반응을 강화하여 쉬운 과제는 더 잘하게 하고 어려운 과제는 더 못하게 하는 사회적 촉진을 설명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애쉬의 동조 실험 설명으로 타당하다. 선분 맞히기 과제에서 바람잡이들이 만장일치로 오답을 말하면 참가자의 반응도 약 1/3 수준에서 그 오답에 동조하였다.
2번 O: 밀그램의 복종 실험 설명으로 맞다. 권위 있는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많은 참가자가 타인에게 전기충격을 가한다고 믿었고, 과반을 넘는 참가자가 450볼트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3번 X: 틀린 부분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영향 양상을 뒤바꾼 표현이다. 실제로는 다수 집단이 주로 외현적 순응이나 표면적 변화를 이끌고, 소수 집단은 일관성을 바탕으로 사적 수용이나 내면적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
4번 O: 자이언스의 사회적 촉진 설명으로 맞다. 타인의 존재는 우세반응을 강화하므로 숙달된 과제나 쉬운 과제의 수행은 좋아지고, 미숙하거나 어려운 과제의 수행은 나빠질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다수 영향과 소수 영향의 결과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수는 겉으로 따르는 순응을, 소수는 깊은 태도 변화를 더 잘 이끈다는 대비를 놓치면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학자 이름을 보면 대표 키워드를 먼저 붙여서 판단한다. 애쉬는 동조, 밀그램은 복종, 모스코비치는 소수 영향, 자이언스는 사회적 촉진으로 연결하면 대부분의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애쉬=동조, 밀그램=복종, 모스코비치=소수 영향, 자이언스=사회적 촉진이다.

NoteBase

문 11.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반사(refle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다.

② 선천적인, 학습되지 않은 반응을 포함한다.

③ 수의적 행동이다.

④ 자극들 간의 선천적인 연합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반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사와 조건반응·수의적 행동·자극 간 연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사는 특정 자극에 대해 자동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이고 학습되지 않은 반응이다.
조건반응은 원래 중성자극이 학습을 통해 유발하게 된 후천적 반응이다.
자극 간 연합은 고전적 조건형성의 학습 내용이지 반사 자체의 정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학습된 반응'이다. 반사는 학습된 반응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학습되지 않은 반응이며, 학습된 반응은 조건반응이다.
② O: 반사는 선천적이고 학습되지 않은 반응을 포함한다. 침 분비, 무릎반사처럼 특정 자극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이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수의적 행동'이다. 반사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자극들 간의 선천적인 연합'이다. 고전적 조건형성은 자극들 사이의 연합을 학습하는 과정이지만, 반사 자체는 자극 간 연합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반사와 조건반응을 바꿔 놓은 선지이고, ④는 고전적 조건형성의 전체 원리를 반사의 정의처럼 바꿔 놓은 선지이다. 반사, 조건반응, 자극 간 연합이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이라는 점을 놓치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학습된', '수의적', '자극 간 연합' 같은 표현이 나오면 먼저 반사의 정의와 맞는지 대조한다. 반사는 특정 자극에 대한 자동적·선천적 반응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반사는 선천적 반응, 조건반응은 학습된 반응, 조건형성은 자극 간 연합의 학습이다.

NoteBase

문 12.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변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인과관계도 있다.

② 사용자의 SNS 접속량과 우울 점수 사이의 관계를 설문조사로 연구하는 것은 인과관계 연구이다.

③ 한 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다른 변인의 값이 감소하면 두 변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④ 상관계수 +.35 는 -.64 보다 더 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 그리고 상관계수의 방향과 강도 해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과관계는 한 변인의 변화가 다른 변인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관계이다.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전제된다.
상관관계는 두 변인이 함께 변하는 정도를 뜻한다. 함께 커지면 정적 상관, 한쪽이 커질수록 다른 쪽이 작아지면 부적 상관이다.
상관계수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절댓값의 크기는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변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도 제3의 변인이나 우연의 영향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반드시 인과관계도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상관관계가 있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다.

② X
사용자의 SNS 접속량과 우울 점수의 관계를 설문조사로 연구하면 변인을 직접 조작하지 않으므로 상관관계 연구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인과관계 연구"이다.
올바르게는 "상관관계 연구"이다.

③ O
한 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다른 변인의 값이 감소하면 두 변인은 반대 방향으로 함께 변한다. 이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옳다.

④ X
상관계수의 강도는 부호가 아니라 절댓값의 크기로 판단한다. 0.64가 0.35보다 크므로 -.64가 +.35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이다.
틀린 부분은 "+.35는 -.64보다 더 상관관계가 강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64가 +.35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이고, +와 -는 방향 차이"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같은 것으로 섞어 놓은 선지이다. ②는 설문조사만으로 인과를 밝힐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④는 +와 -를 강약으로 오해하게 만들지만, 실제 강도는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인을 조작했는지부터 본다. 조작과 통제가 없으면 보통 인과가 아니라 상관이다. 그다음 상관계수는 부호로 방향을, 절댓값으로 강도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관은 함께 변함, 인과는 원인과 결과이다. 상관계수는 부호가 방향, 절댓값이 강도이다.

NoteBase

문 13. 성격의 5 요인 모형(Big 5)에 속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신경증(neuroticism)
② 개방성(openness)
③ 성실성(conscientiousness)
④ 배려성(considerati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Big 5 성격요인의 구성요인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ig 5는 성격을 다섯 차원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핵심 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이다.
이 문항의 판단축은 제시된 용어가 Big 5의 정식 요인명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특히 우호성은 타인에 대한 협조성·신뢰·친절성과 관련된 차원이며, '배려성(consideration)'은 일상적 유사어일 수는 있어도 Big 5의 정식 요인명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불안정성, 불안, 예민함과 관련된 Big 5의 한 요인이다.
② O: 개방성(openness)은 새로운 경험, 상상력,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Big 5의 한 요인이다.
③ O: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계획성, 책임감, 자기통제와 관련된 Big 5의 한 요인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배려성(consideration)'이다. Big 5의 정식 요인은 배려성이 아니라 우호성 또는 친화성(agreeableness)이다. 따라서 '배려성(consideration)'을 독립된 Big 5 요인으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의미상 비슷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수험생이 우호성(agreeableness)을 막연히 '배려하는 성향'으로 이해하면 consideration도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정식 요인명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ig 5 문항은 먼저 다섯 정식 명칭을 떠올린 뒤 제시어가 그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된다. 의미가 비슷한 일상어가 나오더라도 정식 차원명과 다르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ig 5는 신경증·외향성·개방성·우호성·성실성의 다섯 축이며, 유사어가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J의 행동에 해당하는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는?

의사 J는 어떤 젊은 남자를 진료하다가 그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자각증상이 전혀 없었고 그 질병으로 불편함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6~9개월 내에 사망할 것은 확실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 의료법과 병원 규정에 의하면, 의사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지체 없이 환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면담이 예약된 상황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그의 여자 친구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J에게 애원하였다. 그 간호사는 남자 친구가 아프리카 여행을 항상 꿈꾸고 있었으며, 마침내 아프리카로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는 결국 죽겠지만 현재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 여행이 끝난 다음에 알려주면 남은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간호사는 J를 설득하였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J는 환자가 아프리카 여행에 다녀온 후에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주기로 결심하고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다.

① 탈인습적 수준

② 선인습적 수준

③ 후인습적 수준

④ 전인습적 수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 속 도덕 판단의 근거를 읽고 콜버그의 도덕발달 수준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의사 J는 규정상 환자에게 즉시 진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간호사는 환자의 남은 삶의 행복을 위해 당분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J는 규정보다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핵심 개념

후인습적 수준은 사회 규칙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윤리 원리와 인간의 권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수준이다.
전인습적 수준은 처벌 회피나 개인적 이익이 중심이고, 인습적 수준은 규범 준수와 사회 질서 유지가 중심이다.

NoteBase

적용 기준

이 사례의 핵심은 J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면 인습적 수준이지만, 규정보다 상위의 보편 가치와 인간의 행복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 후인습적 수준이다. J는 바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콜버그의 표준 3수준 명칭은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이다. J의 판단 내용은 규정보다 보편적 가치를 앞세우는 것이므로 이 문항의 올바른 수준명은 후인습적 수준이다. 틀린 표현은 '탈인습적 수준'이고, 이 문항의 정답 표현으로는 '후인습적 수준'이 맞다.
2번 X. 선인습적 수준은 콜버그의 표준 단계 명칭이 아니다. 설령 규범 순응을 뜻하는 인습적 수준으로 보더라도, J는 병원 규정 준수보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상위 원리를 더 중시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선인습적 수준'이고, 표준 명칭은 '인습적 수준'이다.
3번 O. 후인습적 수준은 사회 규칙보다 보편적 윤리 원리와 인간의 권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삼는 수준이다. J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넘어 결정했으므로 후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
4번 X. 전인습적 수준은 처벌 회피나 개인적 보상처럼 자기중심적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준이다. J의 판단 근거는 자신의 이익이나 처벌 회피가 아니라 환자의 행복과 보편적 가치였다. 틀린 표현은 '전인습적 수준'이고, 올바르게는 '후인습적 수준'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행동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콜버그 문제는 행동이 친절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처벌과 이익인지, 규칙과 질서인지, 보편 원리인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콜버그 사례형은 행위의 결과보다 판단 근거를 먼저 본다. 처벌 회피나 이익 계산이면 전인습적 수준, 규칙 준수와 질서 유지이면 인습적 수준, 권리·정의·보편 원리를 앞세우면 후인습적 수준이다.

암기 포인트

처벌과 이익은 전인습, 규칙과 질서는 인습, 보편 원리는 후인습이다.

NoteBase

문 15.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K가 최상의 연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각성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각성은 오히려 연기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K의 각성과 수행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은?

① 여키스-도슨 법칙(Yerkes-Dodson law)
② 추동-감소 이론(drive-reduction theory)
③ 대립과정 이론(opponent process theory)
④ 캐논-바드 이론(Cannon-Bard theor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성과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다른 동기·정서 이론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여키스-도슨 법칙: 각성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수행이 떨어지고 중간 수준에서 수행이 가장 좋아진다는 역U자 관계를 말한다.
추동-감소 이론: 결핍이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을 줄이려는 행동이 동기를 만든다고 본다.
대립과정 이론: 어떤 정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대 성격의 정서 반응이 뒤이어 나타난다고 본다.
캐논-바드 이론: 자극에 대해 생리적 각성과 주관적 정서 경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여키스-도슨 법칙은 각성이 일정 수준까지는 수행을 높이지만, 과도해지면 오히려 수행을 떨어뜨린다고 본다. 문제의 '충분한 각성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각성은 방해가 된다'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2번 X: 추동-감소 이론은 결핍 상태에서 생긴 긴장을 줄이려는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각성과 수행의 최적 수준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각성과 수행의 관계'이고, 올바르게는 '생리적 결핍이 추동을 만들고 그 감소가 행동을 강화한다'이다.
3번 X: 대립과정 이론은 한 정서 뒤에 반대 정서가 따라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틀린 연결은 '수행을 높이는 적정 각성'이고, 올바르게는 '쾌감·불쾌감 같은 정서 반응의 상반된 후속 과정'이다.
4번 X: 캐논-바드 이론은 자극이 주어질 때 생리적 각성과 정서 경험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틀린 연결은 '각성 수준에 따른 수행 변화'이고, 올바르게는 '정서 경험과 생리 반응의 동시 발생'이다.

오답 포인트

문장에 '각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서이론인 캐논-바드 이론으로 옮겨 가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정서 발생 기제가 아니라 수행이 가장 좋아지는 각성의 수준이 있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적당한 긴장',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비효율', '최적 수준'이 보이면 여키스-도슨 법칙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결핍 감소는 추동-감소, 반대 정서의 뒤따름은 대립과정, 정서와 생리 반응의 동시는 캐논-바드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여키스-도슨 법칙은 각성의 중간 수준에서 수행이 최고가 된다는 역 U자 관계이다.

NoteBase

문 16. 얼굴 표정과 정서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위적으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에크만(Ekman)은 일부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은 문화 보편적이라고 주장했다.
③ 이저드(Izard)는 기본정서가 학습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④ 문화는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얼굴 표정과 정서 연구에서 주요 학자들의 핵심 주장과 얼굴피드백, 보편성, 문화의 표시규칙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얼굴피드백 가설: 얼굴 표정을 짓는 행위 자체가 정서 경험의 강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크만(Ekman): 기쁨, 분노, 공포 같은 일부 기본정서의 얼굴 표정은 문화권을 넘어 비교적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이저드(Izard): 기본정서는 선천적이고 생물학적 기초를 가지며, 학습의 산물만으로 보지 않았다.
문화의 표시규칙: 어떤 정서를 언제, 얼마나 드러낼지는 문화가 조절하므로 정서표현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얼굴피드백 가설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미소나 찡그림 같은 표정을 짓는 것도 실제 정서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올바르게는 "인위적으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은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다.
② O: 에크만은 일부 기본정서의 얼굴 표정과 그 인식이 문화권을 넘어 공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부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이 문화 보편적이라는 진술은 타당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기본정서가 학습의 결과로 발생한다"이다. 이저드는 기본정서를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준비된 정서로 보았다. 올바르게는 "이저드는 기본정서가 선천적 기초를 가진다고 주장했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문화는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문화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억제하는 표시규칙에 영향을 주므로 정서표현 양식에 관여한다. 올바르게는 "문화는 정서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얼굴 표정과 정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틀리기 쉽고, ④는 에크만의 보편성 주장을 문화 무영향 주장으로 과장하면 틀리기 쉽다. ③은 이저드의 기본정서를 선천적 정서가 아니라 학습 결과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얼굴 표정과 정서 문항은 먼저 "보편적인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가"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학자 이름을 기본정서의 선천성, 얼굴표정의 보편성 같은 대표 주장과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에크만은 표정의 보편성, 이저드는 기본정서의 선천성, 문화는 정서표현의 표시규칙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17. 소변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강아지에게 정해진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학습시키고자 할 때 이 행동을 가장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강화계획은?

① 변동비율
② 고정간격
③ 고정시간
④ 연속강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계획 중에서 새로운 행동의 초기 습득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연속강화와 다른 강화계획의 기능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속강화는 목표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행동을 가장 빨리 형성한다.
변동비율은 반응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높은 반응률과 소거 저항을 만든다.
고정간격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처음 한 반응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고정시간은 반응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마다 자극이 주어지는 방식이어서 목표행동을 빠르게 학습시키는 조작적 강화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변동비율은 몇 번 반응해야 강화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비율계획이다. 높은 반응률은 만들 수 있지만, 소변을 정해진 장소에 보는 새 행동을 가장 빨리 가르치는 방식은 아니다.
틀린 부분은 "가장 빠르게 학습"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는 초기 학습 속도는 연속강화가 가장 빠르다.
② X: 고정간격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첫 반응을 강화한다. 시간 경과가 기준이므로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강화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행동 형성이 느리다.
틀린 부분은 "고정간격"이다. 실제로는 목표행동이 나올 때마다 강화하는 연속강화가 정답이다.
③ X: 고정시간은 일정 시간마다 강화나 자극이 주어지는 반응 비의존적 절차이다. 개가 정해진 장소에 소변을 보는 행동 자체를 조건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고정시간"이다. 실제로는 반응 직후 강화를 제공하는 연속강화가 행동 습득에 가장 효과적이다.
④ O: 연속강화는 정해진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강화하므로, 아직 학습되지 않은 행동을 가장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변동비율은 반응률이 높고 소거에 강하다는 특징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강화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지가 아니라 소변훈련을 처음 배우는 단계의 "가장 빠른 학습"을 묻기 때문에 연속강화가 정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가 새로운 행동의 획득, 초기 학습, 가장 빨리 가르침을 묻는다면 먼저 연속강화를 떠올린다. 반대로 높은 반응률이나 소거 저항을 묻는다면 변동비율을 우선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새 행동 형성은 연속강화, 오래 가는 반응은 변동비율이라는 구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다음과 관계있는 개념은?

탐지(detection)에 필요한 변화의 최소량은 원래 자극의 크기(magnitude)에 비례한다. 따라서 원래 자극이 클수록 변화량도 커야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① 감각순응(sensory adaptation)
② 역하자극(subliminal stimulus)
③ 크기 항등성(size constancy)
④ 웨버의 법칙(Weber's law)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차이역의 크기가 기준 자극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웨버의 법칙을 다른 감각심리 개념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웨버의 법칙은 변화가 느껴지는 최소 차이인 차이역이 원래 자극 크기에 대한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감각순응은 지속되는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서 반응 민감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역하자극은 절대역 아래에 있어 의식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자극이다.
크기 항등성은 거리나 망막상이 달라져도 사물의 크기를 비교적 일정하게 지각하는 지각 항상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각순응은 같은 자극이 계속될 때 민감도가 둔해지는 현상이다. 문제의 설명은 자극의 절대 크기가 커질수록 필요한 변화량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내용이므로 감각순응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감각순응'이며, 올바르게는 '웨버의 법칙'이다.
② X: 역하자극은 절대역 이하라서 애초에 의식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자극을 뜻한다. 문제는 탐지 가능한 상태에서 변화 탐지에 필요한 최소 변화량의 비율 관계를 설명하므로 역하자극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역하자극'이며, 올바르게는 '웨버의 법칙'이다.
③ X: 크기 항등성은 시지각에서 대상의 크기를 안정적으로 지각하는 개념이다. 문제의 설명처럼 자극 강도와 차이역의 비례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크기 항등성'이며, 올바르게는 '웨버의 법칙'이다.
④ O: 원래 자극이 클수록 변화를 느끼기 위한 최소 변화량도 더 커져야 한다는 설명은 차이역이 기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웨버의 법칙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탐지, 자극, 변화량이라는 단어만 보고 ① 감각순응이나 ② 역하자극으로 넓게 묶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원래 자극이 클수록 필요한 변화량도 커진다'는 비례 관계이며, 이것이 바로 웨버의 법칙을 가르는 문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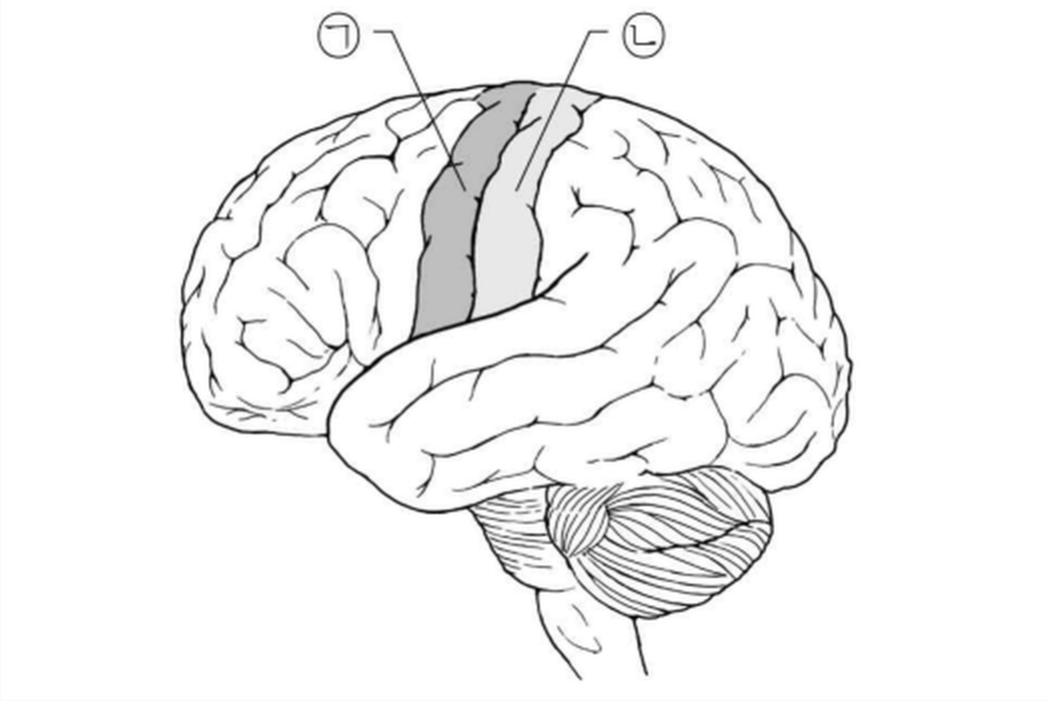
문장에 기준 자극의 크기와 최소 식별 변화량의 비례 관계가 나오면 먼저 차이역과 웨버의 법칙을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민감도 감소는 감각순응, 절대역 이하는 역하자극, 크기 지각의 안정성은 크기 항등성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웨버의 법칙은 '기준 자극이 크면 차이역도 커진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 전두엽 맨 뒤쪽의 긴 경계영역과 ㉡ 두정엽 맨 앞쪽의 긴 경계영역이 담당하는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ㄱ: 신체의 수의적 운동 통제, ㄴ: 신체감각 경험

② ㄱ: 시각 경험, ㄴ: 청각 경험

③ ㄱ: 정서 경험, ㄴ: 단기기억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이

④ ㄱ: 판단과 논리적 사고, ㄴ: 얼굴 표정 인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심고랑을 경계로 전두엽 뒤의 1차 운동피질과 두정엽 앞의 1차 체감각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전두엽 맨 뒤쪽의 긴 경계영역은 중심앞이랑의 1차 운동피질이고, 두정엽 맨 앞쪽의 긴 경계영역은 중심뒤이랑의 1차 체감각피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은 전두엽 맨 뒤쪽의 중심앞이랑으로 1차 운동피질이 있어 신체의 수의적 운동을 통제한다. ㄴ은 두정엽 맨 앞쪽의 중심뒤이랑으로 1차 체감각피질이 있어 촉각, 압각, 통증, 온도감각, 위치감각 같은 신체감각을 경험한다.
2번: X. 시각 경험은 후두엽의 1차 시각피질이, 청각 경험은 측두엽의 1차 청각피질이 담당한다. 틀린 표현은 ㄱ의 '시각 경험'과 ㄴ의 '청각 경험'이며, 올바르게는 ㄱ은 신체의 수의적 운동 통제, ㄴ은 신체감각 경험이다.
3번: X. 정서 경험은 편도체를 포함한 변연계와 전전두피질의 상호작용과 더 관련되고, 단기기억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이하는 기능은 해마가 대표적이다. 틀린 표현은 ㄱ의 '정서 경험'과 ㄴ의 '단기기억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이'이며, 올바르게는 ㄱ은 신체의 수의적 운동 통제, ㄴ은 신체감각 경험이다.
4번: X. 판단과 논리적 사고는 전전두피질의 고차 인지기능이고, 얼굴 표정 인식은 측두엽의 얼굴 관련 연합영역과 더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ㄱ의 '판단과 논리적 사고'와 ㄴ의 '얼굴 표정 인식'이며, 올바르게는 ㄱ은 신체의 수의적 운동 통제, ㄴ은 신체감각 경험이다.

오답 포인트

중심고랑 바로 앞뒤의 좁고 긴 띠를 보면 전전두피질이나 연합영역 기능을 떠올리기 쉽다. 이 문항은 엽 전체 기능이 아니라 경계선에 붙은 1차 피질의 기본 기능을 묻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고랑을 기준으로 앞은 전두엽의 운동, 뒤는 두정엽의 감각으로 먼저 가른다. 경계에 붙은 길쭉한 띠가 보이면 고차 사고 기능보다 1차 운동피질과 1차 체감각피질을 우선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중심고랑 앞은 운동, 뒤는 감각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에 들어갈 A의 태도를 자기지각이론의 관점에서 예측하면?

A는 거의 매일 만나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 어느 날 A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우리 동네 샛강 살리기'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 A는 환경보전에 대해 견해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친구 따라 낯선 환경행사에 참여하는 자신을 보고 '(㉠)'고 생각했다.

① 친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므로 행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② 친구와 함께 였으니 행사에 참여한 대가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③ 이 행사는 재미있었고 환경보전은 중요하다.
④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 수 있겠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태도를 추론하는 자기지각이론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는 평소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지 않았다.
A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환경행사에 참여했다.
판단의 핵심은 기존 태도가 약한 상태에서 실제로 참여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어떤 태도를 추론하느냐이다.

핵심 개념

자기지각이론은 자신의 내적 태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자신의 행동과 그때의 상황 단서를 관찰하여 스스로의 태도를 추론하는 이론이다.
적용 요건은 기존 태도가 뚜렷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A가 환경문제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먼저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환경행사에 참여한 자신의 행동을 본 뒤 어떤 태도를 새로 추론하는지를 본다. 따라서 행동 자체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읽어내는 선택지가 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친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상황 설명만 반복한 것이다. 자기지각이론은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태도를 추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행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이다. 올바르게는 참여한 자신의 행동을 보고 환경보전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 추론해야 한다.
② X: 참여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는 보상 판단 문제이지 태도 추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가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이다. 올바르게는 보상 유무보다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해석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 O: A는 평소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지 않았고 실제로 환경행사에 참여했다. 자기지각이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이 행사는 재미있었고 환경보전은 중요하다'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④ X: 피곤해서 일찍 잠든다는 내용은 행동의 신체적 결과일 뿐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 추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 수 있겠다'이다. 올바르게는 행동을 통해 환경행사와 환경보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해석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친구를 따라갔다는 외적 단서에만 끌렸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지각이론의 초점은 처음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보다, 태도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신의 실제 행동을 보고 어떤 태도를 추론하는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에서 원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보이면 먼저 자기지각이론을 떠올린다. 그다음 실제로 한 행동을 찾고, 그 행동으로부터 어떤 태도를 거꾸로 추론하는 진술인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기지각이론은 내 태도가 흐릴 때 내 행동을 보고 내 태도를 읽어내는 이론이다.

NoteBase